



“국산녹용, 방송국이 추천해 드립니다”

– ABS농어민방송, 국산녹용 판매 실시 –

국산녹용이 방송국의 추천마크를 달고 소비자를 찾게 될 전망이다. ABS농어민 방송국(대표 박병국)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국산녹용 홍보 및 판매방송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지난 12월16일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녹화를 끝마쳤다. 프로그램은 방송에 표기된 주문전화를 통해 소비자가 국내산 녹용 및 중탕 등을 주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존 홈쇼핑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약 10~15분간 구성되며 리포터가 농가를 방문, 국산녹용의 생산과정과 음용방법, 우수성 등을 알려주고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주문전화를 표기,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을 예정이다. ABS농어민 방송을 통해 판매될 제품은 국내산 생녹용(129,000원), 녹중탕(199,000원), 국선

용 2냥(진공동결건조녹용, 160,000원) 등이다. ABS농어민방송은 지난 12월16일 충북 영동에 위치한 본회 배소식 부회장 농장에서 방송을 위한 녹화를 실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배부회장은 국산녹용의 우수성과 외국산과 차별화된 생산과정, 음용방법 등을 소개했다. 방송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전후에 집중적으로 전파를 탈 계획에 있으며 소비자에게 배송될 제품은 본회 품질보증마크와 ABS농어민방송의 우수 농산물 추천 마크를 함께 부착해 배송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 김수근 회장은 이번 방송판매 건에 대한 사업권을 최근 사업을 재개한 (주)한국양특 사업단(대표이사 정원영)에 이관할 것임을 밝혔다. 본회 김회장은 “ABS농어민방송과의 계약, 촬영 등의 모든 업무는 본회가 실시했지만 방송판매를 통한 사업 이윤 등은 모두 양특사업단으로 이관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물량이 판매돼 사업단 정상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며 방송 판매 건과 관련돼 녹용 수매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ABS농어민방송국(Skylife ch155번)에서 설날부터 만나볼 수 있으며 방송국 홈페이지(www.abs.co.kr)에도 게재될 예정에 있다. **한국양특**